

# 中國 大學의 교양교육과 思想政治教育

—세계 主要國의 大學 교양교육 ③—

崔 榮 杓

(KEDI 教育制度研究部長)

## 세계 主要國의 大學 교양교육

1. 韓國의 大學 敎養教育
2. 日本의 大學 敎養教育 내용과 특성
3. 中國 大學의 敎養교육과 思想政治教育
4. 미국
5. 영국
6. 독일

### 1. 緒 言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사회주의를 신봉하여 오고 있다. 최근 들어 4대 현대화를 내걸고 개방·개혁의 추세로 나아가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는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 간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문화혁명 때의 가치와 사상기조가 비판을 받아 무너지는 대신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선회한 데 따른 사상적 공백, 계층간·지역간 격차가 커지는 데 따

른 불만, 자본주의 경제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를 전개함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4대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중국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와 개념은 같지 않지만,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思想政治教育은 매우 重視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를 신봉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적 目的指向性이 훨씬 강할 뿐만 아니라 체제자체가 맑스주의와 모택동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사회주의적 인간을 길러내야 할 사명감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치교육에 의해 새롭게 달라진다”는 맑스주의자들의 주장도 수용하고 있어서이다.

정치교육의 개념이 교양교육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통되는 부분도 있다. 교양교육이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인 데 대해, 정치교육은 사회체제의 존속과 발전에 관련되는 정치성의 의미를 많이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실제로 정치교육이 협의로 사용될 때는 정치 갈등

차원에서의 계급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한 때도 있어 교양교육과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을 예로 하여 보면 과거 文化革命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廣義로 사용될 때는 특정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통상교육을 뜻하는 교양교육의 내용과도 일맥 상통하는 점이 많다. 또한 교양교육이 표면적으로는 中立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교육적인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다. 교육 자체가 사회제도의 일종이어서 특정사회와 완전히 유리된 교양교육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이든 정치교육이든 특정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성질을 띠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상정치교육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사회의 존속과 새로운 발전을 이끌기 위한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는 주로 중국 대학에서의 사상정치교육이 구체적으로 교육목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고 역사적으로 무슨 학과와 내용을 설치하고,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中國의 教育目的과

### 大學에서의 政治教育

중국의 교육은 중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별 교육목표는 대학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공식적인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德·智·體 모든 방면에서 고르게 발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긍지와 신념을 가진,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로 각성된 인민을 길러낸다”고 하고 있어 정치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德·智·體 三育은 표면상으로는 우리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개념을 달리하고 있

다. 德은 정치적인 중립차원에서의 일반 윤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덕성과 인격을 지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智 또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외에 美育과 勞育을 포함하여 五育 교육으로도 얘기되는데 美育은 사회주의적인 예술성을 지칭하고, 勞育은 사회주의 주력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곧 人民으로 길러간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들 미육과 노육은 광의로 볼 때는 덕육과 지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여 문서상으로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은 1950년대 이후 변함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왔다. 교조적으로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하려고 할 때는 사회주의적으로 각성된 인간(紅이라 함) 양성에 치중하였으며, 경제건설을 우선으로 할 때는 전문성이 우선된 인간(專이라 함)을 길러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대 현대화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紅과 專을 고루 겸비한 인간(又紅又專이라 함)을 길러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專의 方向으로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사상정치교육은 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상정치교육은 개혁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思想政治教育의 構造와 內容

사상정치교육은 定規 教科活動과 特別活動(일상적인 課外活動이라 함)의 두 방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1) 思想政治教育 教科活動

대학에서의 사상정치교육 교과활동은 ‘맑스·레닌주의 교육과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방침이 변함에 따라 여러 차례의 굴곡이 있었다.

건국 초기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중국 혁명의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삼아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한편으로 과거 봉건적인

〈표 1〉 1953년 맑스·레닌주의 과정과 시간

(단위 : 시수)

과목	신민주주의론	맑스·레닌주의 기초	정치경제학	변증유물론 역사유물론	계
종합대학·사범대학 계열	100	136	136	100	472
이·공·농·의학 계열	100	136	136	—	372

주 : 1953년 6월 17일부터 신민주주의론 과정은 중국혁명사로 바뀜.

자료 : 『중국교육연감』, 1984, p. 422.

사상을 개조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래서 공통필수과정으로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 ‘신민주주의론’ 그리고 ‘사회발전사’ 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1953년에 이르러서는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조작업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다고 보고 이론과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 사회발전사 과목을 폐쇄한 대신에 ‘맑스·레닌주의 기초’, ‘정치경제학’, ‘변증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이라는 과목으로 교체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1957년 반우파 투쟁이 벌어져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들 과정은 폐쇄되고 대신 각 학년별로 ‘사회주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패하면서 1961년에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다시 정치이론 과정을 복구·개설하였다. 이 때는 공통필수과정으로 ‘중공당사’ 또는 ‘맑스주의 정치학’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철학’ 과목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 시작된 문화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론교육을 경시하고 고등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되어 이들 과정은 없어지게 되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鄧小平이 집권하여 4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서부터는 다시 맑스·레닌주의 교학방침을 재천명하게 되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화 건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금 정치이론 과정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극좌경 풍조는 배제하지만 사회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정치이론 과정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980년 중국 교육부가 개정·공포한 ‘고등교육 맑스·레닌주의 교육과정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면, 맑스·레닌주의 교육 방침은 기본적으로 당의 정치·사상 노선과 해방사상 그리고 4대 기본원칙<sup>1)</sup>을 필히 견지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주의 교육의 특성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4대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주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실제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사회주의 이념 고취 이외에도 실제 현대화에 요청되는 전문성도 중시하여 實事求是의 교육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치이론 과정의 교육은 자연과학과 외국어계열에서는 총 수업 시간의 약 10%를 점하도록 하고, 문과계열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과학대학보다 높은 20% 수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 개설하는 과목으로는 본과 과정은 중공당사, 정치경제학과 철학 과정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문과계열은 별도로 國際共產主義運動史를 추가하고 과학사회주의라는 과목도 실험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수로는 자연계열은 대 과목당 최소한 70시간, 문과계열은 최소한 105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전공의 성격에 따라 개설과목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당시 각 대학별 사상정치교육 이론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이 다른 사범대학과 이과대학 물리학과를 대상으로 삼아 이수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표 2〉, 〈표 3〉과 같다.

師範大學은 우리와 같이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모두 5개 과정으로 조직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이론과정 이외에 외국어·교육학·체육·전공 과정의 다섯 부류로 구분하여

1) 4대 기본원칙은 중국 교육의 기본방침으로 사회주의 정책,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신봉한다는 4가지 원칙을 지칭함.

〈표 2〉 사범대학 본과 각 전공과정별 정치이론과정 개설 과목

개설과정 전공학과	총시수	정치이론 과정	외국어 과 과 과	체 육 과	교육학 과정	전공과정
한문학과	2,429	중국공산당역사, 정치경제학, 철학	외국어	체 육	심리학, 교육학, 중학어문교재교학법	
영 어 과	2,727	중국공산당역사, 정치경제학, 철학		체 육	심리학, 교육학, 영어교학법	각 과 전공 과목 설치
역사학과	2,285	정치경제학, 철학	외국어	체 육	심리학, 교육학, 중학역사교재교학법	(생략)
생물학과	2,609	중국공산당역사, 정치경제학, 철학	외국어	체 육	심리학, 교육학, 중학생물학교재교학법	
미 술 과	3,604	중국공산당역사, 정치경제학, 철학	외국어	체 육	심리학, 교육학, 중학미술교재교학법	

자료: 『중국교육연감』, 1984, pp. 262~263.

제공되고 있다. 이 중 정치이론과정과 외국어과정 그리고 체육과정은 영어과를 제외하고는 학과에 관계없이 거의 똑같이 제공하고 있는 공통필수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교양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학과정은 심리학·교육학만을 공통필수로 지정하고 교과교육학은 학과별로 달리하고 있어 전공필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이론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보면, 역사학과가 정치경제학·철학의 두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는데 대해 한문학과와 영어과 등의 여타 학과들은 중국공산당 역사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한편, 理科系 大學 物理學科 교양 이수과정을 보면, 2개 종류의 사상정치과정 이외에 체육과 외국어를 共通必須課程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 과정들을 교양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상정치교육 보고가 67시간으로 2.4%, 정치이론과정이 218시간으로 7.8%, 체육이 144시간으로 5.2%, 그리고 외국어가 288시간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어 교양과정은 총 717시간, 25.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빈도는 교과과정에 한한 것이어서 사상정치 관련 특별활동까지를 포함시키면 실제적으로는 교양과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활동 이외에 공산주의 청년단 활동, 사회조사 활동, 그리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활동 등이 별도로 수행되고 있는데 사상정치 교과

〈표 3〉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양 이수과정

(단위: 시간)

이수과정	학기 시 험	교과활동 교과시수	학년 및 학기 배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제 1 학기 (18 주)	제 2 학기 (19 주)	제 3 학기 (18 주)	제 4 학기 (17 주)	제 5 학기 (18 주)	제 6 학기 (19 주)	제 7 학기 (17 주)	제 8 학기 (9 주)								
사상정치교육보고		67																
정치이론과정	2, 4, 6	218	2	2	2	2	2	2										
체육		144	2	2	2	2												
외국어		288	4	4	4	4												
필수과정		2,479																
선택과정		316						2	10	12								
이수시간 총계		2,795	20	19	22	20	18	18	14	12								

자료: 『중국교육연감』, 1984, p. 286.

과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특성으로 이론과 실재를 연계시키려는 방침이 매우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교양과정의 비중은 훨씬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정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데 대해 경제는 시장경제 쪽으로 가고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쌓이게 됨에 따라 정치이론 및 사상품덕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1985년 이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政治理論과 思想品德教育 強化에 관한 通知'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하나는 일반 대학에서 사상정치교육 이론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상정치교육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는 조치이다.

먼저 思想政治教育은 중국의 이론교육이 한층 현대화되고 世界와 未來를 지향하며 나아가 한다는 견제하에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가 4대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 하여 사상정치교육이론도 오늘의 추세에 맞추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의 맑스 이론교육도 크게 나누어 '중국혁명사', '맑스기본이론'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개혁 이론'이라는 세 과목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中國革命史는 역사성의 관점에서 중국의 유구한 역사·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중국 사회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며, 맑스주의 기본이론은 맑스 철학·역사학·경제학·정치학·과학사회주의 등의 기본이론 관점을 이해하고 중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현대의 사회사조를 이해하고 이를 맑스에 의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의 이론에서는 4대 현대화 건설의 의의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한편, 중국을 올바르게 건설하고 개혁하는 이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실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思想政治教育學科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상정치 방면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 학과는 黨의 사상정치 공작의 기초 위에 맑스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유관 사회과학 지식 및 오늘의 자연과학 발전 추세를 포괄한 정치성·실천성이 강한 종합형 학과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84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1988년까지 전국의 36개 대학에 설치되어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데

석사반·박사반까지 설치하러 준비하고 있다.

## 2) 特別活動을 통한 思想政治教育

특별활동 과정에서의 사상정치교육은 학교 黨委員會 宣傳部, 학생(청년)공작부, 공산주의청년단, 工會(노동조합), 맑스·레닌주의 敎學研究室,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한 사상정치교육은 정규 교과활동이 아닌 일상 생활교육의 성질을 띠고 있어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주의적 도덕과 품성을 연마하는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의 참여율은 공산주의 청년단의 경우 약 80%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들 활동을 통한 사상정치교육은 최근 들어 4대 現代化 建設의 국가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충실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도 중국 사회주의와 현대화 건설의 신념과 태도를 함양하는 면도 강조하고 있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관련 단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위에서 거론한 공산주의 청년단이 있는데 그 실상은 아래와 같다. 이 단체는 대학별로 조직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조직망을 갖추고 있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주로 각급 당 위원회와 학교 당 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상정치교육에 임하고 있다. 共產主義青年團의 간부수는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다른데, 4,000명 이하의 대학은 3~7인, 4,000명 이상의 대학은 상황을 참작하여 이보다 더 많이 두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공산주의 청년단의 사상정치교육의 주요 임무는 다음의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로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는 올바른 政治方向을 갖도록 하며, 둘째로 정치·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교육 秩序를 올바르게 確立하도록 하고, 셋째로 대학 시기가 원대한 이상과 뜻을 세우는 시기이므로 역사발전의 법칙을 이해하여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적으로 면서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人生觀을 확립하도록 하며, 넷째로 올바른 世界觀을 정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적인 사회주의적 정치감각을 갖고 학교사회의 안정·발전을 도모하며,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교양교육의 범주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思想政治教育 方法

사상정치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론교육은 基本的 내용부터 시작하여 점차 深層의으로 지도하며,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본질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도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니도록 하며 자기 문제를 냉철히 생각하고 청년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주입식 방법을 지양하고 탐구식 방법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학생 자신의 학습과 사고를 통해 사회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서이다. 강의는 事實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내용을 억지로 注入하는 교육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토론을 최대한 유도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試驗制度도 개혁하여 시험성적만이 아니라 平常時의 학습활동 상황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법은 사회주의가 특별히 강조하는 理論과 實際의 連繫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택동이 주장한 것처럼 책만을 통해 배운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부르주아 계급화할 위험성이 커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재를 통해

배운 지식만이 [산 지식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 5. 結 語

중국의 사상정치교육은 국민학교 단계부터 대학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민학교 단계에서는 ‘思想品德’이라는 이름으로, 중등학교에서는 ‘思想政治’ 교과로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맑스주의 이론과’라고 이름하여 몇 개의 과목을 설치하여 실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맑스주의 이론 과목들이 중국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그리고 사상정치교육의 範圍에서 어떠한 특별활동들이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주로 논의하였다.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特性, 자료수집의 한계 그리고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학 교양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두를 포괄하여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본고를 통해서 중국 대학의 사상정치교육의 특성을 몇 가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중국이 4대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게 됨에 따라 사상정치교육도 교조적인 계급투쟁의 도구라는 기능을 벗어나 중국 정치사회의 발전과 폭넓은 인적 함양에 치중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문화혁명 때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여 고등교육을 황폐화하고 오로지 계급투쟁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비해, 1970년대 후반부터는 4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점차 색깔 논쟁을 벗어나 맑스주의를 견지하면서도 미래와 세계를 향해 올바른 價値觀과 世界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현 위상이 社會主義 初級段階<sup>2)</sup>에 속하고 있어 세계 속의 중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선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이론과 실천의 연계활동을 重視하여 체

2) 1987년 10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는데, 현재 중국의 발전 수준이 사회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4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험과 생활을 통해 사상정치교육을 內面化하려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맑스주의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내면화·행동화하기 위해 공산주의 청년당 활동, 맑스·레닌주의 교학연구실 운영 등의 일상생활을 통한 특별활동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상정치교육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는 사회주의 교육방침을 실현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상정치학과를 학문과정으로 설치하여 사상정치교육과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사상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요원들을 단기연수를 통해 길러냈으나, 최근에는 사상정치학과라는 새로운 전공학과를 설치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이 학과는 우리의 국민윤리학과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중국사회의 변질에 대비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사상정치교육을 실시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㉑

#### 〈參考文獻〉

- 중국교육연감 편집부, 『중국교육연감』, 1984년판, 1985~'86년판, 1989년판.  
 최영표, “중국대학의 교육과정”, 『大學教育』, 제 36호, 1988. 11, pp. 44~53.  
 ——— 外,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陳 俠, 『課程論』, 북경: 인민교육출판사, 1989.  
 符娟明 外, 『比較高等學校教程』, 북경: 原子能出版社, 1990.  
 孫曄亭, 『教育學』, 북경: 中央廣播電視大學, 1987.  
 陽之峻, 『中國高等教育』, 북경 사범대학출판사, 1988.